

순천 선암사 40여 년 분쟁 종식되나



방치되고 있는 선암사 소장 경판들.



선암사 수장고는 현재 순천시와 선암사가 이종으로 봉인하고 있다.

조계종-태고종 재산권 협의 해결 기대

태고종이 '분쟁사찰' 선암사의 소유권을 놓고 조계종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상위원회를 구성했다.

태고종 순천 선암사(주지 경담)는 1월 20일 전산총회를 열고 선암사 협상위원회에 참여할 협상위원을 확정했다. 태고종은 총무부위원장 화경 스님과 총무부장 상하 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과 지암, 청하 스님으로 선암사 협상위원회를 꾸리고 조계종과 협의를 벌인다. 조계종은 선암사문제해결특별위원회장 일문 스님과 조계종 선암사 주지 덕문 스님 등 5명이 참여하는 협상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협상위원회를 구성함

에 따라 순천 선암사 재산관리권은 양 종단의 협의결과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

순천 선암사는 1954년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로 조계종이 등기를, 실 거주는 태고종이 하고 있는 상태다. 선암사 재산권 문제로 분규가 거듭되자 1970년 3월 문공부가 순천시를 선암사 재산관리권자로 임명했다.

현재 태고종은 순천 선암사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순천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순천시가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순천 선암사는 구암 13일 순천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 선암사 재산관리 부실 현황을 밝혔다.

선암사는 기자회견에서 "선암사 성보박물관을 순천시장이 겸임하면서 수장고에 소장된 2400여 점의 문화재들이 진위여부조차도 감정이 안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선암사 도난문화재의 약 90%가 순천시의

선암사 재산관리 기간 중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됐다"고 주장했다.

성보박물관 관리 부실

선암사는 "개신교 안수집사인 노관규 시장이 관리를 무시하고 2008년 7월부터 성보박물관장직을 겸임하며 보물급 문화재들이 파손되거나 훼손되고 있다"며 "전문 학예사 없이 임시직 1명에 유물교체 없이 방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화재 보수 시급

순천 선암사의 경우 문화재 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보수공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순천시가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을 해 진행한 제7차 중창불사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특정업체가 약 110억원 대 공사비를 받아 진행했다.

선암사는 "특정업체 수혜로 부실공사가 진행됐으며 사법당국에서 이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을 판결했다. 이후 문화재청이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전각을 비롯한 건축물들이 붕괴위험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차 체험관 운영도 갈등

이와 함께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등기와 운영권 문제도 심각하다. 순천 선암사 경내에 자리한 차 체험관은 도비와 시비 등 총사업비 44억 원을 들여 2007년 6월 건립됐다. 2004년 당시 주지였던 지허 스님이 건립을 주도했으나 지허 스님이 주지직에서 해임되자 순천시가 등기를 순천시로 등록하고 운영권을 가지면서 운영방향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산관리 내역 공개 요청

관리중인 선암사와 말사인 향림사 도지세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요청도 거절하고 있어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선암사는 해결 방안으로 △선암사 성보박물관 성보문화재 전문 재조사 △성보박물관 유물관리 및 운영권 이관 △차체험관 등기이전과 운영권 반환 △문화재관람료 및 주차비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암사 재산관리권을 해지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조계종과 태고종 협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야산 골프장이 해인사 망친다”

조계종 환경위, 불교단체 등 골프장 사업승인 불허 촉구

가야산 골프장 건립에 대한 불교계의 반대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준)는 '민족문화유산 말살하는 가야산 골프장 사업 환경부는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1월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역사문화와 생태환경, 경관이 수려한 가야산국립공원이 행정권의 개발위주 정책과 맞물려 심각하게 훼손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가야산국립공원은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경관전과 국보3점, 보물15점을 비롯한 명승, 사적, 유·무형문화재 94점이 분포돼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식물 719종, 동물 1374종, 기타 생물 592종 등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꼽힌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야 할 환경부가 고시 철회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허가권을 빌미로 모든 것을 공단에 미루는 것은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을 국립공원시설계획에서 삭제하고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불허를 요청하는 공문을 1월 11자로 발송했다. 조계종 환경위는 공문에서 "가야산 국립공원 내 대규모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경관전과 국보3점, 보물15점을 비롯한 명승, 사적, 유·무형문화재 94점이 분포돼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식물 719종, 동물 1374종, 기타 생물 592종 등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해인사 민족문화유산 골프장보다 중요”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장명 스님

“가야산 국립공원은 환경보존 가치가 높은 명산이지만 불교계로서는 해인사가 위치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골프장 사업 계획은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장명 스님(사진)은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인사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장경판전과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이 소장돼 있다. 불교계는 물론이고 민족문화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가야산 골프장 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다.



스님은 가야산 국립공원 내 대규모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이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만일 골프장이 건설된다면 국립공원의 보전 및 관리 임무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기범 기자

죽비와 목탁

불의 씨앗 키워온 방화범

범어사 천왕문 방화범이 잡혔다. 내부소행이었다. 교계는 일순간 꿀 먹은 벼어리가 됐다.

사람들은 화재와 동시에 방화범의 정체에 비상한 관심을 가졌다. 극단적인 개신교인의 소행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추측성 보도도 난무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방화범이 잡히지도 않았음에도 개신교 소행일 것이라는 소문이 진실인 듯, 서로를 비방하기에 바빴다. 언론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올해 초 세계적인 종교학자 폴 니티는 부산에서 “범어사 화재 사건도 개신교인의 소행인 것으로 안다”며 연신 사과했다. 사람들은 묵묵히 그 사과를 받았다. 개신교의 소행일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1월 16일 오후 방화범은 잡혔다. 내외의 구분도 모호하지만 ‘내부소행’으로 소개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함께 절밥 먹으며 살아왔던 사람이 분명했으니 내부가 맞다.

범어사 청련암 안도 스님은 그의 범행이라는 소식은 “정전벽력 같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사찰이 개방돼 있다 보니 왔다 갔다하며 바쁜 소일거리를 도왔다. 경찰 조사에 따라 조용히 마무리하겠다”며 긴 설명은 하지 않았다. 방화범은 한 때 출가 수행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은 더 크다. 인제 불사가 운운되기도 했다.

피의자는 환속 후 기거할 곳도 없고, 연고도 없이 1990년대부터

사찰의 소일거리를 도우며 범어사 청련암에 간혹 머물며 살아왔다. 2009년 10월부터는 6개월간 강원도 암자 불사현장에서 일한 후 출골 범어사에서 생활해왔다. 범어사나 청련암 주변에서 그를 본 사람들은 많았다. 사람들은 방화범을 “정상은 아니었다”고 회상한다. 방화범에 대해서 물어보면 “남사스럽다. 부끄럽다. 아직까지 그 얘기냐”라며 입을 닫는다. 범어사 청련암 중무실은 “그런 사람 모른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들끓던 분노도 의심도 천왕문처럼 불에 타 사라졌다. 민족문화수호·불법외교의 시작도 끝도 결국 사람의 일이었다.

〈범어경〉에는 “남의 잘못은 쪽정이처럼 까불고 제 잘못은 눈처럼 숨긴다”고 했다. 파사현정(破邪顯正). 깨뜨려야 할 사악한 생각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었다. 불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돌아볼 때다.

이상언 기자

불교문화상품전 어떤 작품들 선정 됐나

작가적 경향에서 실용·아이디어 제품 부각

4년 째 이어오고 있는 불교문화상품전은 초기에 다소 작가적 경향을 보였다. 1회 대상작인 ‘연화문 백자호룡’은 정교한 솜씨로 소반 위에 다기와 등불을 형상화했다. 우수상은 부처님 모습이 새겨진 목걸이·반지와 전기를 연결하면 어둠 속에서 부처님 형상이 반짝이는 작품이었다.

2회 때 대상작 ‘연지’는 육조 마가에 연꽃이 연결돼 있는 작품이다. 웰빙 열풍을 맞아 고안된 ‘연지’는 육조 마개를 막으면 수면 위로 연꽃이 떠오른다. 우수작으로는 천은사의 풍경을 배경으로 한 시계와 목탁 모형의 거울이 선정됐다.

3회 공모전에서는 연꽃 모양의 명함꽂이와 책갈피 ‘피어나다’가

대상을, 우수작은 ‘만(卍)’자를 형상화한 USB 허브와 여인네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등불 ‘여인의 향기’가 차지했다.

이번 4회 공모전에서는 박연옥 씨의 작품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금속으로 제작된 불상, 사찰, 연꽃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작품을 중첩시키면 메모지나 명함, 필기구를 넣을 수 있다. 우수상으로는 목탁 모형의 미니 스피커와 종이공예 작품이 선정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는 “2회 대회부터 학생들의 참여와 아이디어 작품이 늘었다. 3회 때부터는 실용성과 아이디어, 제품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기범 기자

현대불교신문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한국불교기자협회 공동캠페인

올해는 불기 2555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온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 법을 펴시고 입멸하신지 2555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서기(서력기)는 기독교 성인의 탄생을 기준으로 년도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불자들이 아무생각 없이 불교행사와 서식에 서기에 남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불기 2555년을 맞은 올해 온 불자가 불기를 사용해 불자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고히 세웁시다.

- 사찰 내부 문서나 서적 포스터 홍보물 현수막에는
예) 2011포교전진대회 = 2555년 포교전진대회

- 사찰 밖에서나 해외에서는
예) 2555(2011) 불교행사 협조요청

2555(2011) korea buddhism week (한국불교주간) - 서기를 병기나 부기

※ 좌선, 기도하시는 스님들께서 직접 착용해보고 인정하신 제품입니다.

스님, 현장근무, 군인, 시장상인, 경비, 뉘시, 부모님 효도선물, 등산, 골프 야외활동에 좋음!
기업납품 및 단체주문 환영!!

관절염 예방, 무릎보호 기능성 기모 털내복

좌선·기도 전용 관절보호 털내의 SET

2겹 봉제의 강력한 관절보호 발열 털 기모 내의 세트

관절부분이 2중으로 제작되어 관절에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줍니다. 털단단 2겹 봉제로 원단과 원단사이 공기층이 형성되어 보온층이 뛰어납니다.

입은 듯 안입은 듯 가볍고 따뜻하게
섬유사이의 공기층이 단열효과를 발휘하여 외부 찬공기 유입을 막고 내부에서 발생한 열의 방출을 최소화 시켜드림! 우수한 원단의 탄력과 밀착성으로 겉옷 착용시 활동하기 편리합니다.

무릎관절 부분 2겹 봉제
무릎관절 부분이 2중으로 봉제되어 좌선시 가장 취약한 무릎관절로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주고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추운 겨울 보다 효율적으로 신체보호 기능을 보여드리는 최고의 좌선 관절 보호 털내의 자신있게 선보여 드립니다.

최고의 좌선 내의로 효율적
신축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몸에 밀착이 되어도 착용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탁월한 소재의 원단으로 강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에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 색 상: 회색
- 구 분: 남성용, 여성용
- 사이즈: 상의 - XXL / 하의 - FREE, XXL
- 가 격: 상·하의 각 ₩20,000원

※ SET 구매 시 ₩38,000원

모든 부분 안감 울털

구입 및 제품문의 **02)2264-7947 / 011-9947-7947**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7502-04-027453 예금주:김은정